

고위험군 25명 병원·저위험군 27명 소방학교 격리

광주 '16번 확진자' 접촉자 306명 실태조사 착수

16일간 활동 접촉자 더 늘 수도...병원 감염된 딸 접촉자도 파악
직원 접촉 광주우편국 임시 폐쇄...市, 광주역 등 발열 감지기 배치

■확진 환자 세부 현황

(2.4일 10시 기준)

연번	성별	연령	국적	우한방문	입국일자	확진일자	입원기관	접촉자수 (956명)
1	여	35	중국	O	1.19	1.20	인천의료원	45
2	남	55	한국	O	1.22	1.24	국립중앙의료원	75
3	남	54	한국	O	1.20	1.26	명지병원	16
4	남	55	한국	O	1.20	1.27	분당서울대병원	95
5	남	33	한국	O	1.24	1.30	서울의료원	23
6	남	55	한국	X	-	1.30	서울대병원	17
7	남	28	한국	O	1.23	1.30	서울의료원	7
8	여	62	한국	O	1.23	1.31	원광대병원	95
9	여	28	한국	X	-	1.31	서울의료원	2
10	여	54	한국	X	-	1.31	서울대병원	39
11	남	25	한국	X	-	1.31	서울대병원	0 ¹⁾
12	남	48	중국	X	1.19	2.1	분당서울대병원	219
13	남	28	한국	O	1.31	2.2	국립중앙의료원	0 ¹⁾
14	여	40	중국	X	-	2.2	분당서울대병원	3
15	남	43	한국	O	1.20	2.2	국군수도병원	14
16	여	42	한국	X	1.19	2.4	전남대병원	306
17	남	37	한국	X	1.24	2.5	명지병원	확인중
18	여	20	한국	X	1.19	2.5	전남대병원	확인중
19	남	38	한국	X	1.24	2.5	서울의료원	확인중

1) 다른 확진자와 이동 경로가 일치하여 추가 접촉자 없음(10번과 11번, 12번과 14번)
2) 우한 교민 임시항공편 입국자로 격리된 상태에서 증상 발견되어 현재까지 접촉자 없음

광주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접촉자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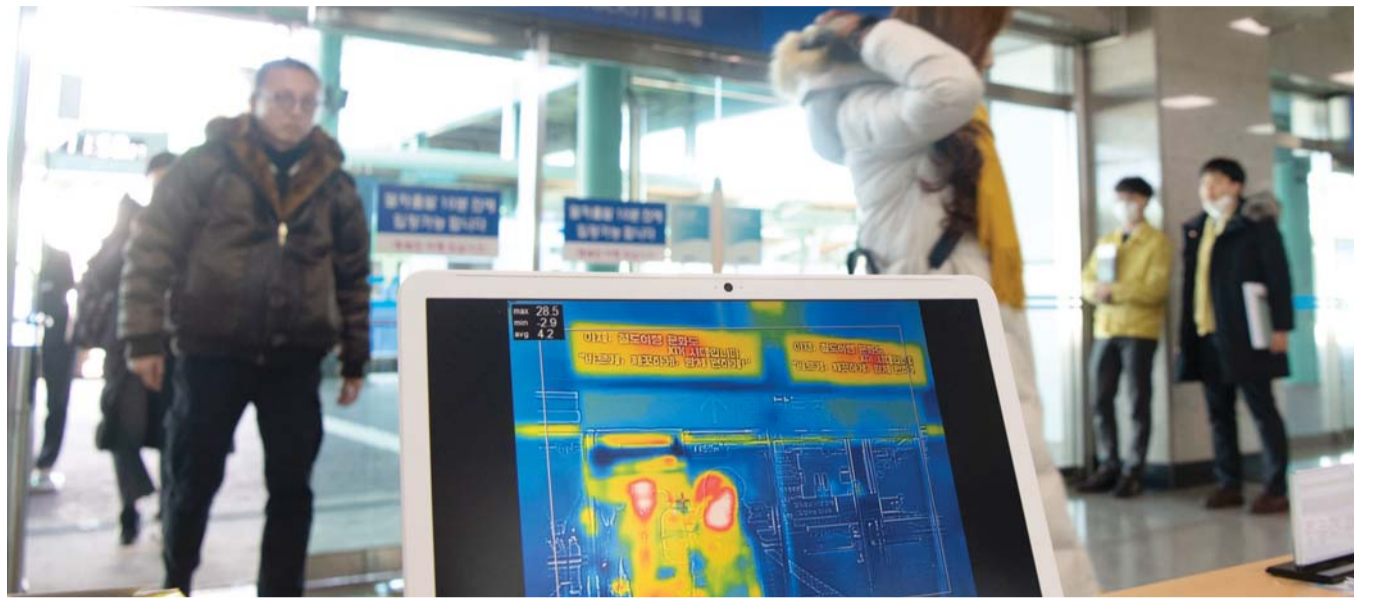
광주시는 5일 광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16번 환자의 접촉자 306명의 명단을 해당 자치구로 보내고 상태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 접촉자의 소재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상태를 확인해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질본은 역학조사를 통해 16번 환자가 입원한 광주21세기병원 272명, 내원한 전남대병원 19명, 가족·친지 15명 등 306명을 접촉자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질본과 광주시는 16번 환자의 확진 판정이 나오자 곧바로 역학 조사를 벌여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CCTV 판독 등을 통해 동선을 확인하고 접촉자를 분류했다.

확진 판정이 나온 4일 당시 광주21세기병원에 근무한 의료진과 직원 70명, 입원 환자 70명 등 140명을 격리하고 조사를 벌였다. 이 중 16번 환자와 같은 층에 있던 25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병원에 그대로 격리하고 있다. 27명은 저위험군으로 분류돼 광주소방학교 생활관으로 옮겨졌고 나머지는 자가 격리(능동 대상 감시자)로 분류해 지속해서 상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보건 당국은 이들의 검체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있으며, 함께 병원에 있다가 감염된 딸의 이동 경로를 파악



5일 오전 광주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비한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다.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운행되는 서해열차를 탄 시민이 광주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해 접촉자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최종 감염여부는 6일 오전까지는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확진자가 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광주시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근무처를 폐쇄하고 주요 관문에 발열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광주역, 광천터미널, 광주공항 등 주요 관문에 발열 감지기를 배치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시와 자치구는

송정역 2대, 광천터미널 2대, 광주역과 광주공항에 1대씩 모두 6대의 발열 감지기를 설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광주우편집중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우편집중국을 임시 폐쇄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광주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귀가하도록 한 뒤 자가 격리 조치했다. 이 직원은 설 연휴 기간 신

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현재 무증상 상태라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광주우편집중국청사와 시설·장비에 대해 방역 조치를 했고, 직원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직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에 대한 격리가 종료되는 시점에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일본·광주시 정보 통제가 시민 불안·혼란 키운다

"정부 지침" 확진자 동선 등 침묵 구리·서울시 등과 대조 각종 가짜뉴스도 불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국민 혼란을 막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동선 등 각종 정보를 통제하면서 광주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도 '감염증 확진자와 관련한 내용은 일본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며 정보 제공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5일 질병관리본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6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A(여·42·광주시 광산구)씨의 이동 경로가 그로부터 28시간여만인 5일 오후 2시 공개됐다. 일본이 밝힌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A씨는 1월 25일 자신의 자동차로 나주에 있는 친정을 방문한 뒤 오후 8시에 집으로 돌아와 26일에는 종일 집에 머물렀다. 발열증상이 나타난 1월 27일 오전 9시께 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광주시 광산구 광주21세기 병원을 방문,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딸(21)과 함께 1인실에 머물렀

다. 이어 오후 6시께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뒤 밤 10시께 다시 광주21세기 병원으로 돌아왔다. 이후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딸 간병 및 본인 치료를 위해 병원 내에 체류했다. A씨는 3일 증상이 악화돼 전남대병원을 다시 찾은 뒤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선별진료소로 이동했고, 4일 전남대병원 음압병상에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본이 광주시와 함께 하루 넘게 역학조사를 벌인 끝에 공개한 내용이다. 마트 방문 등 디테일한 내용은 물론 지난달 19일 태극에서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후 9일 간의 동선은 아예 없었다. 하지만, 광주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주시는 '일본 지침'이라며 A씨 등 확진자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선 일체 침묵하고 있다.

광주시는 재해 등 위급상황 시 시민에게 전송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도 매일 한 차례씩 위생수칙만 보낼 뿐, 확진자 발생 정보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과 광주시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이 각종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광주시민의 불안은 공포로 바뀌고 있다. 실제 인터넷

과 SNS 등에는 A씨의 직장부터 A씨가 다닌 대형마트 등 각종 가짜 동선과 해당 마트가 폐쇄됐다는 등의 가짜뉴스까지 떠돌고 있다.

대부분 '가짜뉴스'지만, 일본과 광주시가 침묵하는 사이 시민들 사이에선 '진짜뉴스'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날 17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구리시에선 구리시장이 직접 나서 확진자 발표 3시간여 만에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시간별로 공개했다. 공개장소에는 토스트 가게, 죽집, 마트, 탑승한 시내버스 번호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달 31일 "어제(30일) 7번째 환자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일본이 즉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염병을 잡는 특효약은 투명성이고 신속성"이라며 "정부가 실시간으로 발표되지 않고 정보공유가 안되면 시민들의 불안은 키우게 된다. 감염병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정보공개가 안되면)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큰 문제를 만든다"고 일본의 대처 방식을 질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그림 속 병색 완연한 데카르트, 폐렴으로 사망



(299) 데카르트

우한 폐렴이라고도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좀처럼 사그라 들지 않은 채 세상이 떠들썩하다. 날이 풀리면 인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도 진정이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맞이하는 옛그제 입춘이 반갑기만 하다.

'폐렴'으로 흉흉해진 즈음인 지라 오래 전 만난 그림 한 점이 자꾸 생각난다. 프랑스 출신의 화가 피에르 루이 뒤메닐(1698~1781)의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과 대신들'은 지적으로 알려진 크리스티나 여왕과 신하들이 데카르트(1596~1650)의 철학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연극적 조명과

무대 효과를 나타내는 장르화에 탁월한 작가가 알려진 화가는 특히 프랑스 상류 사회의 이상 묘사에 뛰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했던 데카르트는 학교기숙사의 엄격한 규칙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누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 받았을 정도였다. 1649년 데카르트를 초빙한 크리스티나 여왕은 새벽 다섯시에 강의 들을 것을 고집했는데 이 강의는 다섯 시간에 걸쳐 이어지곤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데카르트는 이른 시간에, 유난히 추운 스웨덴의 겨울 날씨 때문에 면역체계가 극도로 약화돼 이듬해 폐렴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 데카르트를 비롯해 작곡가 스카를라티, 건축가 베르니니 등의 후원자이기도 했던 크리스티나 여왕은 그림 한가운데 앉아 총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데카르트의 강의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 오른 편에 서있는 데카르트의 안색은 어쩐지 병색이 완연해 보인다.



뒤메닐 작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데카르트는 종종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가 그게 꿈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모두 꿈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으로부터 데카르트는 진리에 다가설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심각한 상황 속에서 사실을 왜곡한 거짓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합리적 의심'이 그러한 거짓들을 극복해줬지만 당장은 이와 같은 비상사태가 꿈이었으면 좋겠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박사>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